

經書수업에 대한 한 모색*

— 中文科의 경우를 중심으로 —

朴 晟 鎭**

<目 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수업방법에 대한 모색 |
| II. 經書수업의 의의 | V. 나오는 말 |
| III. 經書수업의 현황 | |

I. 들어가는 말

經書수업은 중국문화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儒家經典을 해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¹⁾ 경서는 중국문화에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쳐왔고, 사상과 의식을 형성하는데 기초적 역할을 하여왔다. 문학과 역사, 도덕과 정치의 철학이 총체적으로 경전 속에 융해 되어 있으며, 경서를 통하여 중국문화의 핵심과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의 상황을 볼 때, 中文科에서 경서교육에 대한 인식과 현황은 열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古文수업 자체를 ‘拷問’이라 꺼리는 학생들의 농담에는, 일단 文言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특별과제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중문과 전임강사
1) 經典의 사전적 의미는 세계 여러 종교의 존중을 받는 본문이나 거룩한 문서이다. 현재 대륙에서는 일반적으로 각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 혹은 그 구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혼동을 피하고자 儒家의 經典을 經書라 칭한다.

으로 된 典籍에 대한 거부가 담겨있다. 불행히도 이는 白話에 대한 사랑과 열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기피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게다가 학내외적으로 거센 취업용 혹은 소위 실용적 학습경향이 HSK와 맞물려 중문과 학생들이 경서과목을 외면하는 결정적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단시간에 가시적 성과를 보장하는 HSK성적이 졸업 후 최고의 보험증서가 되면서 경서는 어느 사이 강좌명단에서 제외된 듯싶다. 이른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만든 하나의 현상이랄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관인지는 필자로선 확신하기 어렵다. 결국 경서수업을 기피하는 주요원인은 회화·어법 등 언어관련 수업보다 실용성이 없다는 인식과 아울러 매우 어려운 과목이라는 선입견 때문이다. 드는 품에 비해 돌아오는 혜택이나 평가가 미미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경서과목을 기피하는 것 또한 어찌 보면 당연지사라 하겠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성도야 및 논리력향상 더 나가 漢字문화권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의 틀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경서교육을 방기하는 것은 강단에 선 사람으로 일종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라는 방법론의 모색이다. 현 상황을 감안하여 어떻게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가.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경서의 교학에는 우선 正字(繁體字)에 대한 착실한 습득과 文言語法에 대한 학습 그리고 대상 경서에 대한 博物學的 지식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기실 필자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해답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단편적인 경험과 몇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줄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經書수업의 의의

왜 경서수업을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자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本稿의 시도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소략하나마 줄

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류의 사고와 정서에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는 견해에 대해 부인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학술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분명 인류 공통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목하 인류는 가치 공통의 문명을 향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경우 미국의 문화를 위시한 서양의 온갖 문물이 이 지역을 점령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생활 전반에 걸쳐 우리의 이른바 「문명」은 서양을 것을 追隨하는 것이 「발전」이라는 인식이 깊숙이 배여 있다. 정신문명의 결정이랄 수 있는 문학영역에도 서양의 각종 이론과 주의들이 작품들의 창작과 감상의 잣대로 구실을 한지도 오래 되었다. 중국의 경우 清末부터 불기 시작한 정신계의 西勢東漸 현상은 「신문화운동」의 기치아래 거의 전 영역에서 성공하였고, 현재 그 「운동」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의 功過와 是非를 따지는 것은 본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한국이 정신영역에서 서양인이 되지 못했고, 될 수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굳이 우리가 스스로를 진단하지 않더라도 서양인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은 여전히 한자문화권의 일원이라는 것이며, 그들과는 다른 정신세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섭섭하지만 우리의 西洋追隨는 그 많은 노력과 학습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우리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이것은 왜인가. 공통의 가치가 존재하는 동시에 각 지역과 나라마다 저만의 특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지역적인 차이이다. 자라온 기후나 토양이 다른 사람들이 만든 문화는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정신세계를 담아내는 도구의 차이이다. 붓으로 글을 썼던 사람과 펜으로 했던 사람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요즘 말로 바꾸면 매체가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역사적 환경이다, 인류가 보편적 정서를 지녔다 하지만 살아온 시대는 서로 다를 것이다. 이런 요인들이 결합하여 이른바 個性을 만들게 된다. 이 밖에 민족의 성격과 감정표현의 차이 등도 역시 인소로 작용한다. 결국 중국에도 중국의

특수성, 간단히 개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중국을 중국다운 것으로 규정하게 되는 근원이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한다면, 자연스럽게 경전을 떠올리게 된다. 예컨대 철학·문학 자체에 중점을 둔다면 인류 공통의 속성을 연구하면 되겠지만, 중국에 중점을 둔다면 중국의 철학과 문학의 개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중국 관련 학문을 하는 이는 중국이 중국이 되는 所以然과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중국의 개성에 대한 문제이다. 일찍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 명쾌한 설명을 한 이가 바로 南朝의 劉勰이다. 그는 《文心雕龍》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치밀한 편장구성으로 답을 주었다. 그는 제1장 <原道>, 제2장 <徵聖>, 제3장 <宗經>으로 중국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즉 개성에 대하여 명쾌하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원도>에서 문학의 근본이 天地, 즉 자연이라 설파하고 있다.²⁾ 인간과 자연의 교용에서 절로 文心이 솟아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한 보편적 현상일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을 人文化하는 존재가 있으니 중국에서는 바로 聖인들이었다는 것이다.³⁾ 그들의 心得이 문자화 된 것이 바로 경전이다.⁴⁾ 그리고 후세의 모든 중국 문학은 여기에서 줄기가 뻗고 가지가 나고 꽃으로 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징성>과 <종경>은 문학의 보편성이 중국문학의 개성으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기실 이것은 중국의 인문학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큰 틀을 제시한 것이다. 왜냐하면

2) <原道>: “文之爲德也大矣, 與天地並生者, 何哉? 夫玄黃色雜, 方圓體分, 日月疊璧, 以垂麗天之象; 山川煥綺, 以鋪理地之形: 此蓋道之文也. ……夫以無識之物, 鬱然有彩; 有心之器, 其無文歟. ……故知道沿聖以垂文, 聖因文以明道, 旁通而無滯, 日用而不置. 《易》曰: 「鼓天下之動者存乎辭.」 辭之所以能鼓天下者, 迺道之文也. ……”

3) <原道>: “……取象乎河洛, 問數乎蓍龜, 觀天文以極變, 察人文以成化. ……故知道沿聖以垂文, 聖因文以明道, ……”. <徵聖>: “夫作者曰聖, 述者曰明. 陶鑄性情, 功在上哲. 夫子文章, 可得而聞, 則聖人之情, 見乎文辭矣. ……夫鑒周日月, 妙極機神; 文成規矩, 思合符契; 或簡言以達旨, 或博文以該情, 或明理以立體, 或隱義以藏用. ……是以論文必徵於聖, 窺聖必宗於經. ……”

4) <宗經>: “……三極彝訓, 其書言經. 經也者, 恒久之至道, 不刊之鴻教也. 故象天地, 效鬼神, 參物序, 制人紀, 洞性靈之奧區, 極文章之骨髓者也. ……”

문학 역시 학술의 일환이므로 이것은 굳이 문학에만 적용해 이해할 것은 아니다. 중국문명과 서양문명의 차이에 대해 궁구한다면 무슨 답이 나오겠는가. 그 근원을 거슬러가면 필시 孔子와 유가의 경서를 제외하고 답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제 중문과에서 중국의 경서를 배우는 것은 중국의 개성을 이해하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근원에 대한 이해 없이 현상만을 좇는다면 우리의 학습이 아무리 치열하더라도 결국 徒勞에 그칠 것이다.

하나 더 첨언할 것은 한국과 경서와의 관계이다. 한국의 정신문화는 다양한 학문사상의 전개 속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시대의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했던 궤적이다. 그 가운데 儒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여타 다른 학문의 비중과는 달리 모든 영역에 펼쳐 있다. 비단 일상적인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중요 사안의 결정, 그리고 심도 깊은 철학적 논변에 이르기까지 儒家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의 사상과 문화는 그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만큼 유학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 유학이 수용되던 통로는 무엇인가. 바로 經書이다. 불교·도교와는 달리 祈禱的·呪術的 성격이 희박한 유학은 경서를 매개로 하여 한국인에게 주지적·논리적·도덕적 사유의 틀을 제공해주었다. 우리의 선조들은 경서를 통해 天·人과 古·수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고 삶과 문화를 풀어갔던 것이다. 또한 그것은 詩가 되고 글씨가 되고 그림이 되기도 하는 등 무수한 형태로 우리 문화 속에 스며들었다. 따라서 경서의 학습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다.

III. 經書수업의 현황

경서수업에 대한 모색은 현황과악에서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하여 먼저 중문과 및 인접학과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주요대학⁵⁾의 현황

서울대 중문과(이하 모두 학부과정만 한정)의 경우, 경서관련 과목은 없다.⁶⁾ 물론 다른 강좌에서 수업중 부분적 강의를 가능할 수 있으나 독립된 과목으로 노출된 것은 없다.⁷⁾ 한국외대 중국어과에는 3학점으로 관련과목이 개설되어있다. 바로 『經書諸子講讀』인데, 교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을 영토가 거대하며, 그 역사가 오랜 만큼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의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한다. 그 가운데에서 춘추와 전국시대의 여러 학술사상으로서 유가의 경전 및 제자의 여러 논저들이 그 핵심이랄 수 있다. 따라서 본 수업은 그들 경전의 학습을 통해서 중국문화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춘추전국시대의 유가경서를 어디까지 산정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 경전의 학습을 통해서 중국문화의 뿌리를 이해』라는 구절에서 본고와 같은 논지를 견지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다만 교과목의 해설만을 본다면 「제자백가」강독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세 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경서를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져 보인다.

儒學을 校是로 하는 성균관대 중문과에는 경서 관련 과목이 없다. 추측컨대 儒學관련 학과가 있는 연유에서리라 짐작한다. 다만 중문과의 경서 수업이 다른 학과에서의 그것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가의 문제는 일단 차

-
- 5) 주요대학이라 함은 중문과 역사가 가장 오래 된 3개 대학을 지칭한다. 외대는 1954년, 성대는 1955년에 학과가 창설 되었다. 서울대의 경우 일제시기 1926년 支那文學科로 개설되었으나, 해방 후 1946년에 설치된 중국어중국문학과가 그 시작이라 본다. 추후 더 조사범위를 넓혀 본고를 보충하고자 한다.
- 6) <詩經·楚辭>를 개설한 학과가 간혹 있는 바, 그 성격이 詩歌문학적 관점에서 개설되었다 판단하여 일률적으로 제외하였다.
- 7) 본고에서 말하는 경서과목은 과목명에 「경서」라는 어휘가 노출된 경우만 해당한다. 『고전독해』 혹은 『명문감상』이란 과목에서 경서를 일부 강의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는 일단 제외한다. 이하 과목명에는 『』를 사용한다.

치한다. 이상의 소략한 조사가 모든 중문과의 현황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전통 있는 학과에서도 경서가 독립된 과목으로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매우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참고로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여대의 경우 『경전강독』을 개설 중인데, 교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가의 경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경전의 체제와 내용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강독한다.

필자의 경우 冒頭에 十三經에 대한 개론적 내용을 전달하고, 강독은 「四書」 발췌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재는 없고 유인물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한 학기 단위의 진도를 맞추어 적절한 교재를 찾지 못한 것과 교안 개발에 게으른 탓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간과해서 아니 될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儒學科·漢文學科와 같이 경서를 개설하는 학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서과목을 개설하는 인접학과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아래에 간략하게 소개 한다.

2. 인접 학과⁸⁾의 현황

여기서 인접학과라 함은 한문학과 혹은 儒學科(東洋哲學) 같은 중국학 관련 학과이다. 서울대의 경우 「東洋史學科」가 있지만 경서과목이 별도로 개설 된 것은 없다. 유일하게 儒學科가 존재하는 성균관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유학동양학부 『大學·中庸』 전필
유교사상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이론서가 《대학》과 《중용》인

8) 편의상 그 대상을 1절의 주요대학, 즉 서울대·한국외대·성균관대로 한정하였다.

점을 감안하여 《대학》과 《중용》의 성립배경 및 체계 등을 설명하고, 원전 강독에 치중하여 원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유학이론을 정립하며 아울러 한문 독해력을 제고시킨다.

『論語』 전필

현대사회는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맹신과 물질 만능적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비인간화로 요약된다. 현대 사회의 이러한 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논어》에 나타난 인간 중심적 가치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동양적 사유가 인간과 우주와의 조화를 꾀하는 철학체계를 탐구해본다.

『孟子』 전필

공자사상을 계승하여 학문적, 이론적으로 보완, 발전시킨 사상가가 맹자이다. 《孟子》는 유학의 이론과 학문체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교과서이므로 《맹자》 원문을 세밀하게 읽고 검토하여 그 속에 들어 있는 발전된 유학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五經의 세계』 전선

오경 원전을 읽고 그 안에 담겨진 철학을 이해한다. 《詩經》, 《書經》, 《易經》, 《禮記》, 《春秋》의 글을 통하여 오경 정신이 갖는 현대적 의미를 탐색해보고, 현대인에게 필요한 오경의 정신과 태도를 탐구해본다.

유학과는 주로 철학적 접근을 위하여 교안이 마련되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 외 한문학과와 한문교육과도 유관과목이 있다.

한문학과 『四書강독 I·II』 전필

유교경전 중 한문학작품에 깊은 영향을 끼친 《논어》와 《맹자》를 중심으로 원문을 강독하고 그 사상적 의미와 문제를 살펴본다.

한문교육과 『경전강독 I(전필)·II(전선)』

동양사상의 가장 중요한 고전이요, 문장의 전범으로 읽혔던 사서(四書)를 학습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한문학 독해의 기초를 기른다.

두 학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교육목적의 하나는 「四書」에 대한 중시와 원전 독해력제고라고 말하겠다. 종합하면 교재의 대상으로는 사서가 가장 선호되며 철학적인 이해와 독해력제고를 중시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아마 이것은 국내 대학의 경서수업에서 공히 보이는 현상이 아닐까 싶다. 여하간 이상의 사례만 보면 중문과보다는 인접학과에서 경서수업을 중시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⁹⁾

환기할 것은 副題에서 밝혔든 본고는 중문과의 경우만을 상정하여 모색하는 글이다. 그 이유는 위에서 보이듯 중문과의 경서수업이 빈약하고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문과 경서수업의 개선을 위한 試案을 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원론에서는 인접학과와 대동소이하겠지만, 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담당강사에 따라 수업의 내용이 상이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공통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부분에 대해 아래에서 논하고자 한다.

IV. 수업방법에 대한 모색

중문과에서 경서 수업시 담당강사가 공통적으로 유의해야 할 부분을 아래에 두서없이 적어 보았다. 이것은 필자의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하나의 모색에 불과하다.

우선 경서 교학의 大綱정도에 해당하는 원론으로, 교학 쌍방이 공히 유의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하나, 강독은 먼저 본문의 뜻을 이해한 다음에 소리를 내어서 반복 읽어야 한다. 경서에는 그 음이 예외적으로 쓰이거나 독특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하나, 선독을 하는 경우 가능한 제시된 문장의 앞뒤를 소개하고 넓게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실지로 전국의 모든 한문학과에서는 예외 없이 경서수업을 진행한다.

하나, 제시된 본문의 핵심적 사상을 이해하는데 힘을 쏟고, 그것이 성립된 시대에서의 성격과 현재에 유효한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 이와 같다면 경서의 내용이 살아있는 지식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하나, 경전의 일부 내용은 역대 학자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이해를 위해 주석을 수집하고 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 경서가 일부 식자들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玄學화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제 항목과 관련하여 경서수업의 현장에서 느낀 바를 더듬어 아래에 적어보고자 한다.

1. 架橋적 태도

현재 경서를 교학하는 경로는 두 갈래라고 본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재야, 즉 전통적인 漢學계열과 다른 하나는 講壇, 즉 현대적 교육을 받은 강단계열이다. 물론 이런 분류가 의미 없을 수도 있다. 기존의 강단학자들 또한 대부분이 전통 한학계열로부터 이른바 글을 배웠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대화 하는 시스템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의 강단이 완전히 전통과 유리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경서의 他者化 문제이다. 시간이 갈수록 내 것 혹은 우리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과 남의 것 혹은 낯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만나 교학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괴리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질 것이다.

지금의 학생들에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경서는 타자화 되어있다. 중국의 옛날 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그들도 경서가 우리문화에 준 영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희박하다고 본다. 이렇듯 대부분 학생이 제3자의 시점을 갖고서 수업을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란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일반 학부생을 상대로

한 수업의 공통적 첫 난관이다. 중국인이 아닌 제3국인으로서의 시각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고 있는 경우, 즉 한자문화권의 발전에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전통적 대주주, 한국인으로서의 시각은 다를 것이다.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외국으로 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유산을 활용하고 또한 중국을 외국으로 받아들이는 세대를 위한 가교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하나 덧붙일 것은 과도하게 특정학과의 시각을 받아들여 전달하는 행위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단한 교학이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 중국어로 경서읽기

대다수 중문과의 경우,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2장에서 감지했듯이 많은 수의 중문과에 경서수업이 없다는 것이다. 인접학과 자체가 없다면 강좌개설에 대한 고민일 것이고, 만약 학내 인접학과에 유관과목이 있을 경우는 독자적 강의개설 여부에 대한 고민이다. 일종의 위탁교육 시행 여부에 관한 문제라고도 보겠다. 다행히 중문과의 수업목표나 방법이 인접학과와 일치한다면 좋겠지만, 필연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바로 중국어이다. 중문과는 원전강독에서 중국어로 낭송하는 과정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한국음은 필수적으로 선행된다. 이렇게 되면 아주 원초적인 문제로 인해 위탁교육이 성사될 수 없다. 현행 학제에서의 중문과는 중국을 외국으로 보고 창설한 학과이다. 그전에는 우리 스스로 한자문화권의 일원으로 생각했기에 굳이 구별을 하지 않은 관행이 있었다. 서울대 중문과 연혁의 한 단락은 이를 잘 말해준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고등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중국문학과 한국문학을 엄격하게 구분하거나 중국문학을 외국문학으로 여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과거에 우리문화가 한자문화권 안에서 성장해 온 데다 문화와 학술의 기록이 거의 대부분 한자에 의존하고 있었던 까닭이다. 근대문

학이 시작되고 우리의 글로 문학작품을 창작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중국문학을 외국문학으로 인식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해방 이전까지는 외국문학으로서 중국문학에 대한 연구성과는 지극히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¹⁰⁾

위에 제시한 문장은 1절과도 연계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중국어와의 관계만으로 치환하여 생각해보자. 위 인용문의 골자를 환언하면 중문과에서 경서수업을 한다면 원문을 중국어로 읽는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것이 중문과와 인접학과와의 가장 두드러진 분기점이 아닌가 싶다. 다시 말해 경서를 중국어로 읽는 시간을 필수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그런 경우 위탁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3. 실용성의 강조

중문과에서의 경서수업은 위의 낭송을 출발점으로 다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강사의 전방위적인 수업 준비가 필요하다. 문학방면으로는 굳이 劉勰과 顏之推의 宗經論¹¹⁾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호오와 관계 없이 글을 배우는 것은 곧 경전을 읽는 것으로 시작되었음을 상기시키고, 글을 읽고 쓴다는 행위에서 경서가 배제된 적이 없음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더 나가 현대의 각종 보도문이나 공식문건에 쓰이는 표현 혹은 기타 출판물에서 경서의 문장을 활용하는 사례를 적극 수집해야 할 것이다. 대만의 정치적 변화를 경고하며 中共이 사용한 “視其所以, 觀其所由”같은 것이 그 예이다. 어학적인 면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學而時習……”의 時가 先秦시기에는 일정한 시간을 말할 때만 쓰인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

10) 서울대학교 중문과 홈페이지 참조.

11) 《文心雕龍》〈宗經〉: “故論說辭序, 則《易》統其首; 詔策章奏, 則《書》發其源; 賦頌歌讚, 則《詩》立其本; 銘誌箴祝, 則《禮》總其端; 紀傳銘檄, 則《春秋》爲根”, 〈序志〉: “唯文章之用, 實經典枝條, 五禮資之以成, 六典因之致用. 君臣所以炳煥, 軍國所以昭明, 詳其本源, 莫非經典.” 《顏氏家訓·文章》: “夫文章者, 原出五經, 詔命策檄生於《書》者也; 序述論議生於《易》者也; 歌詠賦頌生於《詩》者也; 祭祀哀誄生於《禮》者也; 書奏箴銘生於《春秋》者也.”

고, “有朋而自遠……”에서 有의 뜻에 某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도 설명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守株待兔’, ‘緣木求魚’, ‘割雞焉用牛刀’ 등 활용이 많은 고사성어를 챙겨 어문활동에 응용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이 굳이 분류하자면 어문방면에 대한 준비라 하겠다.

또한 인격도야를 위해 좋은 글을 뽑아 면려하는 작업도 빠트려서는 안 될 것이다. 예컨대 “天將降大任於是人也……”에서는 불굴의 의지를 세우도록 고무시키고, “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에서는 사회에 대한 정의감을 일깨우려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런 名言·名句에 대한 암송은 경서수업의 실용성을 극대화하는 최상의 방편이라 하겠다.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추상적 이론의 제시보다는 보다 납득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해 소개해야 한다고 본다. 비근한 예로 수많은 중국어 면접자가 천편일률적 자기소개를 하는데, 모 학생이 <出師表>를 암송하여 굴지의 회사에 취직했다는 등의 일종의 미담을 소개하는 것 따위이다. 適所適時에 경서를 활용하는 방법은 오직 암송에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그 부가가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밖에도 한국문화와 관련한 典章制度나 理氣心性の 문제 등도 담당강사가 부단한 준비를 해야 하지만, 부득이하다면 좋은 도서를 소개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해 일일강사로 배려하는 문제도 적극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이것 또한 경서수업에 있어서의 난제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여러 방안은 경서수업이 비실용적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차원 높은 실용성을 구비한 고부가가치 학습대상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4. 시청각자료의 활용

오늘날 교육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방식은 시청각 자료의 활용이다. 이것은 전 교육영역에서 공히 보이는 현상이므로 새삼스레 그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필자가 경서 강의 시 주로 사용하는 자료

는 낭송과일 혹은 유관한 도록과 영상물이다. 주로 필자가 소장한 CD 혹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되는데, 실지로 운용하기에 다른 분야보다 애로점이 많다. 시가나 소설의 경우는 이와 관련한 그림이나 영화 등이 많고 혹은 작가나 주인공이 뚜렷하게 드러나 자료들을 비교적 쉽게 구하는데 비해, 경서의 경우는 딱히 적당한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공자·맹자 같이 뚜렷한 인물의 경우는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경서의 특성상 딱히 맞는 자료를 고르기가 어렵다. 필자의 경우 공여지책으로 篆書로 찍어 낸 경서를 구해 보여주거나, 각종 죽간 및 帛書의 도판을 제공하지만 매우 제한된 범위임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청각 자료의 활용은 자료수집에 드는 시간과 노력에서 오는 수고와, 그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얻기 힘들다는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담당강사는 학습자의 동기부여 및 흥미유발을 위해 부단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사항은 필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매우 미비하고, 어찌 보면 기타 수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일 수도 있다. 다만, 2장의 경서교육의 당위성과 결합하여 수업을 진행한 결과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판단되어 옮겨 보았다. 기실 한국 중문과에서 경서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담당강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우선 학교보다는 사회에서 개인적인 학습을 받고 강단에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해당경서에 대한 정독을 해본 경험이 없는 강사가 몇 권의 참고서를 이용해 수업을 담당할 경우 자칫 범용한 수업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두 문제는 각 대학 중문과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일 것이다.

蛇足으로 번역에 대한 아쉬움을 덧붙이고자 한다. 경서의 국역 사업은, 우리 전통 문화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전통 사상과 문화가 현재에 유효성을 유지하고 향후 미래에도 우리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 특히 학제간의 연구가 강조되는 현 추세에 비추어볼 때, 경서의 국역은 단순히 儒學 연구자들에게만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 사회의 문화 일반을 연구하는

타 분야 학문 연구자들에게도 필요한 사안이다. 중국어문에 깊은 이해를 가진 인재들이 공신력 있는 주석본을 내는 일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V. 나오는 말

전국 각지에 수많은 중국어 학원들이 盛業중이고,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느껴지지만 초등학교에서도 중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전공자로서 기쁘고 반가운 일이다. 또한 학생들의 지원과 사회에서의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보면 이 땅에 우수한 중국전문가들이 대량으로 배출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는 것 같아 든든하기까지 하다. 一衣帶水의 관계인 중국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문과가 이렇게 양적으로 팽창하는 이면에 적절한 질적 향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미래를 낙관만 하기는 힘들 것이다. 중국어학습 자체에만 매달리고 그를 통하여 더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창졸간에 제도 구력도 다 놓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어로 표현해 내는 내용과 가치관·인문교양의 수준이 담보되어야만 그 언어가 빛이 날 것이고 중국인들에게 단순한 역관이 아니 형제로 다가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실용적 학습이 아닌가 싶다.

주지하듯 현재 대륙은 경제적인 자신감으로 인해 새로운 국학열기가 전국을 휩쓸고 있다. 특히 공자를 추앙하는 국가적 열기는 이른바 ‘兒童經典誦讀活動’이라는 캠페인까지 발족시켰다. 각 지역마다 단체가 조직되어 전국적으로 보급 중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兒童經典誦讀의理念>이라는 이론까지 등장하였다. 이렇게 배운 세대가 성장하면 더욱 많은 유가경서가 어문활동에 사용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물론 이런 이유에서만 경서를 배우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학생들이 가까운 시기에 만날 중국인들은 경서의 세례를 흠뻑 받고 자란 세대가 될 것이다. 중문과라는 경계를 넘

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무한한 문화컨텐츠의 발굴과 한국 전통문화의 부흥을 위해서도 경서교육은 외면할 수는 없다. 앞으로 효율적인 경서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서 학교와 사회 전반에 이에 대한 각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參考文獻>

- 朱熹, 《四書集注》, 臺北: 世界書局, 民國74年. (影印本)
- 楊伯峻, 《論語譯註》, 香港: 中華書局, 1984.
- 楊伯峻, 《經書淺談》, 北京: 中華書局, 2003.
- 劉勰 著 范文瀾 注, 《文心雕龍注》, 香港: 商務印書館, 1986.
- 黃侃, 《文心雕龍札記》,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6.
- 紀昀, 《紀曉嵐評注文心雕龍》, 揚州: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997 (影印本)
- 顏之推 著 王利器 撰, 《顏氏家訓集解》, 增補本 제1판; 北京: 中華書局, 1993.
- 顧易生 蔣凡 著, 《先秦兩漢文學批評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 章太炎, 《國學講演錄》,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5.
- 김장태, 《유교와 한국사상》,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3
- 오수형, <고대산문 연구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중국어문학》30, 1997.
- 권석환, <국내 중국 고전 산문연구사 검토>, 《중국어문학논집》11, 1998.
- 김용표, <한국대학에서의 중국고전 산문 교학에 관한 고찰>, 《중어중문학》28, 1998.

<中文提要>

儒家經書不僅在各個方面對中國文化都有很深的影響, 而且對中國人的思想和意識形態的形成也起了很大的作用。文學和歷史, 道德和政治的哲學在總

體上都和經書有着密切的關係，通過經書，可以掌握中國文化的核心和本質。在韓國各大學的中文系有關經書的教育認識和現狀却令人擔憂，反而和中文有關的一些系更重視經書的教育。現在中文系的學生漸漸增多，活動的內容也越來越廣泛。如果我們的中文系僅僅在數量上壯大而不在質量上有所提高的話，韓國中文界的未來是十分令人憂慮的。只停留在重視漢語學習的水平上的話，只能是一無所得。所以我們有必要改變經書課程不實用的認識，強調它的重要性，並為此作出努力。爲了發覺無限的文化產業，也爲了韓國傳統文化的振興絕對不能忽視經書的教育。希望今後各方對高效率的經書教育的討論越發熱烈，學校和社會能夠加深對此的覺醒。

주제어 : 儒家, 經書, 教學, 韓國, 中文系